

구약의 나그네살이에 나타나는 화해와 상생의 윤리

—아브라함 내러티브의 윤리적 읽기*—

이사야(남서울대학교 교수)

I. 들어가는 말

II. 나그네살이의 대립과 갈등

1. 거짓말, 그 생존의 언어
2. 삶의 터전과 소유를 둘러싼 갈등
3. 웃음과 울음 사이에서

III. 화해와 상생의 윤리

1. 제9계명과 윤리의식
2. 화해와 상생
3. 다문화적 인식

IV. 나오는 말: 나그네 이스라엘, 나그네 하나님

• ABSTRACT •

The patriarchal history as beginning of the Old Testament history can be called the grafting field between the Old testament and Ethics in the meaning that it presents the beginning of ancient Israelites religion and life formalities. It's framework is composed of special members of same family, so to speak Abraham, Jacob and Isaac and various themes such as their confrontations and conflicts and finally their overcome etc. And lies the common denominator of sojourning life behind their confrontations and conflicts.

Especially, Abraham's sojourning life which is the beginning and center of the patriarchal history presents not merely the life of an ancestor's living style and his great belief/religion of Yahwism but also confrontations and conflicts between the members and generations and their overcoming stories can be seen as the windows and mirrors to see their own stories in *Sitz im Leben* of the exilic circumstances.

This thesis presents the confrontations and conflicts in Abraham's sojourning life as those in the themes of lies for survival, conflicts for the land/possession and conflicts in the multicultural family/community. I try to read Abraham narratives in a pont of view such as 9th of decalogue, ethical consciousness of the redactor, conciliations and win-win awareness, and multicultural cognition etc. And I include theological viewpoint namely sojourner-Israel and sojourner-God in it. That is one of the efforts to read the Abraham's patriarchal narratives with the current prism and to explicate the overcoming and win-win narratives in the ethical standpoint. So that I presents theological message of ancient Israelites' self-identity as sojourners and God-cognition as sojourner too in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social ethics.

Key words: Abraham, confrontation and conflict, reconciliation and win-win, ethics, multicultural, sojourning life

I. 들어가는 말

구약을 윤리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이스라엘의 입장에 놓아보고 이스라엘의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체험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체험이 공동체로서의 그들의 실제적인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¹⁾

대표적인 현대 구약윤리학자인 라이트(C.J.H. Wright)의 이 말은 신학에서 가장 연구가 되지 않은 분야인 구약 윤리학을 개척하면서 내린 방법론적 단언이다. 그는 구약학과 윤리학의 접목을 시도하면서 신학과 윤리는 성경에서 분리될 수 없음을 역설하면서, 구약 윤리를 법에만 국한시킬 수 없고, 시, 지혜, 내러티브에서도 그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구약의 여러 장르에서 구약의 윤리적 쟁점들이 모여 있는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의가 강조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별히 율법들이 작동하는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그 율법들이 자리 잡고 있는 내러티브를 필요로 한다고 보았다.²⁾

1) C.J.H. Wright, *Old Testament Ethics for the People of God: The relevance of Old Testament ethics*, 김재영 역, 『현대를 위한 구약윤리』(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6), 22. 라이트는 구약윤리의 틀을 신학적 각도(하나님), 사회적 각도(이스라엘), 경제적 각도(땅)라는 삼각관계 속에서 이해한다. 구약성서에 윤리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으나 구약의 윤리는 고대 이스라엘이 그들이 살았던 삶의 정황 속에서의 야웨신앙이라는 척도에서 검토해볼 수 있다.

2) 위의 책, 51-63, 60. 1970년대 이후의 구약윤리를 연구한 주요 저술로는 라이트 전후로 T.C. Vriezen, *An Outline of Old Testament Theology*, 2nd ed. (Newton, M.A.: Chas. T. Bgranford, 1970); B.C. Birch & L.L. Rasmussen (eds.), *Bible and Ethics in Christian Life* (Minneapolis: Augusburg, 1976); J. Barton, "Understanding Old Testament Ethics," *JSOT* 9 (1978), 44-64; C.J.H. Wright, *The Use of The Bible in Social Ethics* (Bracote: Grove, 1983); idem., *Walking in the Ways of the Lord: The Ethical Authority*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5); R.E. Clements, "Christian Ethics and the Old Testament," *Modern Churchman* 26 (1984), 13-26; W.C. Kaiser, *Toward Old Testament Ethics*, 홍용표 역, 『구약성경윤리』(서울: 생명의 말씀사,

구약성서에서 전역사(창 1~11장)가 창조 이후의 광범위한 인류역사를 신앙고백적 빠른 템포의 언어로 간략하게 묘사하는 반면, 족장사는 한 가족, 즉 아브라함³⁾과 그 후손들의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라르고(*Largo*=very slow)적 속도를 유지하는 대표적인 내러티브 모음집이라 할 수 있다. 창세기 전체의 80%에 달하는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이 가족의 이야기는 창세기의 주요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⁴⁾ 지금까지 족장사에 대한 구약학계의 관심은 주로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 그리고 그 후손들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족장사의 내러티브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그의 조카 롯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⁵⁾의 삶을 둘러싼 사건들에서 시작하여 적절한 상속자의 탄생, 열국의 아비/어미가 되는 약속 등 굵직한 신학적 주제들

1990); idem, "New Approaches to Old Testament Ethics," JETS 35 (1992), 289-297; idem, *What does the Lord Require?: A Guide for Preaching Biblical Ethics* (Grand Rapids: Baker, 2009); W. Janzen, *Old Testament Ethics: A Paradigmatic Approach* (Louisville, Ken.: WJK, 1994); J.W. Rogerson & M.D. Carroll, *Theory and Practice in Old Testament Ethics: The Contribution of John Rogerson*, JSOTSup. 405 (London: T&T Clark, 2004) 등을 들 수 있다. 김창대, 「구약윤리 방법론을 위한 사례연구: 사형제도」, 한국구약학회, 『제86차 춘계학술대회: 구약과 공정한 사회』(2011.4.29), 238-243에서 인용. 여기서 김창대의 구약윤리 연구사 정리는 불모지였던 국내연구에서 분명한 공헌을 하고 있다.

3) 창세기 본문은 17장을 분기점으로 아브람(나의 아버지)과 아브라함(많은 무리의 아비, 5절), 사라와 사라(두 이름 모두 여군주, 여주인을 뜻함, 15절)를 구분한다. 이와 같은 이름의 구분은 본 논문의 논지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여기서는 구분 없이 아브라함과 사라로 통일해 부르고자 한다.

4) G.J. Wenham, *Exploring the Old Testament 1: The Pentateuch*, 박대영 역, 『모세오경』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7), 69.

5) 족장사에 등장하는 이삭 내러티브는 아브라함, 야곱, 요셉 내러티브에 비해 그 분량이 상당히 적은 것이 사실이다. 아브라함 내러티브(창 11:27-25:11)가 광범위하게 등장하는 데 비해, 이삭 내러티브(창 21-26장)는 아브라함 내러티브와 섞여 간간히 등장할 뿐이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정도로 여겨진 것이 사실이고, 그동안 창세기의 다른 족장들 사이에 묻혀 상대적으로 연구가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삭은 아브라함 내러티브를 요약하는 축소판이자 그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못지않게 각 구성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대립과 갈등 그리고 그 극복에 지대한 관심을 돌리고 있다. 그리고 이들 족장들의 대립과 갈등 배후에는 나그네살이 경험이라는 공통점이 등장한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의 우르에서 가나안, 애굽으로 이어지는 이주민의 경험, 야곱은 밧단 아람에로의 도피생활 그리고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간 노예살이가 바로 그것이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된 나그네들의 이야기가 가나안을 중심으로 전개되다가 애굽에서 마무리된다! 나그네살이로 시작되어 나그네살이로 끝나는 것이다.

구약성서는 나그네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아야 할’ 사회적 약자로 지목한다. 구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회적 약자는 나그네(ger 게르)이다. 이들은 피난민이거나 대부분 경제적 빈자 층에 속하였고, 노동하여 생계를 유지했다. 고대 근동사회에 있었던 여러 정치적, 사회적 변혁들은 쉽게 이들 게르들을 산출해 내었으며, 이들은 현대의 이민자들, 특히 불법 취업자들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될 수 있다.⁶⁾ 특히 족장사의 시작이자 중심이 되는 아브라함 내러티브의 나그네살이는 단순히 옛 주요 조상들의 삶을 묘사하거나 그들이 지녔던 불굴의 야웨신앙을 제시할 뿐 아니라, 구성원과 계대 간의 연속성 속에 나타나는 대립과 갈등 그리고 그 극복의 이야기를 포로라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창문과 거울로 제시하고 있다.⁷⁾ 본 논문은 이주 이야기로 시작되는

6) F. A. Spina, "Israelites as gerim, 'Sojourners' in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 *The Word of the Lord Shall Go Forth*, eds. by Carol L. Meyers and M. O'Connor (Winnoa Lake: Eisenbrauns, 1983), 323. 이사야, 「구약의 사회적 약자와 법전의 사회윤리」,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제18집, (2009), 263에서 중인.

7) 창세기가 제시하는 창문으로서의 본문은 우리에게 고대 조상들의 삶과 관심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고, 거울로서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의 삶에 적절한 이슈들을 반영한다. 이 이중적 기능은 이 내러티브가 지닌 고대성이 동시에 가장 현대적이기도 함을 확실히 보여준다. P. Gooder, *The Pentateuch: A Story of Beginnings* (New York: T&T Clark, 2000), 47.

아브라함내러티브의 나그네살이에 나타나는 대립과 갈등의 점철을 이 시대의 프리즘으로 읽고, 그 극복과 상생의 이야기를 윤리적 관점에서 해석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이다. 스스로를 나그네로 인식했던 고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아브라함 내러티브에 등장하는 하나님까지도 나그네로 인식했던 신학적 메시지를 기독교 사회윤리적 성찰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나그네살이의 대립과 갈등

1. 거짓말, 그 생존의 언어

창세기 11:31~32에서 데라는 그의 가족을 이끌고 우르-카시딤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죽고,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창 12:1)으로 시작된 아브라함의 처음 이주는 가나안에서 그치지 않고 남방(네게브)를 거쳐 애굽까지 이어진다. 창세기 본문은 이미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의 생이별이라는 ‘보이지 않는 갈등’(invisible conflict)을 넘어 가나안으로 이주하고,⁸⁾ 다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생존의 갈등에 직면했음을 보도한다. 아브라함의 이주가 의미심장한 이유는 구약시대에 자신의 혈연, 지연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신분이 법적 보호의 영역을 벗어나는 사회적 약자, 나그네로 전락

8) 필자가 이를 보이지 않는 갈등(invisible conflict)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창세기 본문은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의 나이가 칠십 세였다고 하고(창 11:26),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다(창 11:32). 그리고 아브라함의 본격적인 등장을 다루는 창세기 12장은 하란을 떠날 때의 아브라함의 나이를 75세로 기록하고 있다(창 12:4).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 데라의 나이는 125세였다는 계산이 나온다. 데라는 여전히 살아 있다. 여전히 살아 있는 아버지를 타지에 남겨두고 새로운 이주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보다 큰 고통과 용기, 갈등을 수반하는 일임에 틀림이 없다. 이샤야, 『이주와 체단쌓기를 통해 본 아브라함의 모습』,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 연합신학대학원, 『신학논단』 60집, (2010.6), 116.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⁹⁾ 법적 보호의 영역을 벗어난 낯선 땅에서 느낀 생존의 위협은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려는 자구책으로 이어진다(12:12~13).

나그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일(창 12:10~20)은 그랄 땅에서의 사건(창 20:2~18)과 더불어 아브라함 이야기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이중적 표현(Doublet),¹⁰⁾ 아브라함 내러티브에 나타나는 첫 번째 대립과 갈등을 일러준다. 그러나 사실 성서 본문은 그의 삶을 위협하는 무슨 불안한 기운이 있었음을 말하지 않으며, 아브라함이 애굽에 체류하던 중에 일어난 이 일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는다. 단지 복의 근원으로 약속받은 아브라함이 저지른 거짓말로 인해 정작 그 복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바로와 그 집이 재앙과 징벌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말한다. 자신의 생존의 언어로 계획된 거짓말이 아내의 희생을 야기하고(창 12:11,15),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받아야 할 땅의 모든 족속 중 첫 대상자인 애굽과 바로가 재앙의 희생양이 되어버린다. 창세기 20장에는 12장에서 벌어진 거짓 이야기가 되풀이된다. 무대를 옮겨 잠시 그랄 땅에 우거하던 아브라함은 다시 한 번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하였고 그랄 왕 아비멜렉은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취하고야 만다(창 20:1~2). 이 사건에 다시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아비멜렉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은 다시 아브

9) 구약은 나그네/외국인을 크게 노크리(נכרי)와 게르(גר)로 구분한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게르에 해당한다. 노크리와 게르의 구분에 대해서는 왕대일, 「구약 속의 신약, 신약 속의 구약: 아케다와 골고다」, 한국신학연구소, 『신학사상』 115집 (2001), 103; 이태훈, 「구약의 외국인 복지」, 한국구약학회, 『구약논단』 27집 (2008), 71.; 이사야, 앞의 글, 116 참조.

10) 이 이야기는 이삭이 아내인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인 이야기(창 26:6-11)와 결부될 때에 삼중적 표현(triplet)으로 나타난다. 자료비평은 이 이야기들을 서로 다른 자료나 전승에서 기원된 이야기들에 돌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왔다는 전승은 P 자료의 것으로, 그리고 그가 하란에서 왔다는 전승은 J 자료의 것으로 돌린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삼중적 이야기는 구전전승으로 돌리는데, 12:10-20이 기본전승이고, 20:10-18과 26:1-11은 그에 대한 윤색으로 간주한다. P. Gooder, 앞의 책, 56.

라함에 대한 아비멜렉의 질책으로 이어진다. 이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은 예언자로 소개된다(창 20:7).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야 할 예언자가 아비멜렉을 통해 그 범죄함을 질책 받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진다(창 20:9).

1947년에 사해 두루마리와 함께 발견된 창세기 외경인 희년서(the Book of Jubilees)에는 아브라함의 저지른 아내/누이 거짓말에 대해 창세기 본문과는 사뭇 다른 흥미로운 유대전승을 소개하고 있다. 희년서에 따르면 애굽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꿈에 삼나무와 종려나무에 관한 꿈을 꾸는데, 사람들이 와서 종려나무는 그대로 두고 삼나무만을 자르려고 했다. 그때 종려나무가 소리를 쳐서 삼나무를 자르지 못하게 한다.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으로 꿈을 해석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꿈 얘기를 들려주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에 자신을 오라비로 부를 것을 당부한다. 애굽에서의 생활이 5년을 경과한 후 애굽 왕 바로는 사라를 아내로 맞이했고 아브라함을 죽이려 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오라비라고 부른 사라의 거짓말로 인해 아브라함은 목숨을 유지하고 애굽에는 2년 동안 하나님이 내린 역병이 범궤하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바로에게 거짓말을 한 이가 아브라함이 아닌 사라라는 점이다.¹¹⁾ 이는 아브라함을 이상적인 신앙인으로 간주한 희년서의 저자가 아브라함을 변증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¹²⁾ 거짓말의 주범이 창세기의 주장처럼 아브라함이든 아니면 희년서의 주장처럼 사라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11) 유연희, 「누가 위협에 빠진 미녀를 구하라?」, 한국여성신학회, 『한국여성신학』 51집, (2002 겨울), 10-11. 여기 등장하는 애굽의 왕은 Pharaoh-Zoan이다. 그는 사래를 자기의 후궁으로 삼고, 아브라함은 사래가 자기의 오빠라고 했기 때문에 살려준다. 후에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날 때 그는 많은 선물을 내어놓는데 그중에 하갈도 끼어 있다. 그리고 조카 롯은 바로의 공주 중 하나와 결혼을 하게 된다. N. Avigad and Y. Yadin, *A Genesis Apocryphon* (Jerusalem: Hebrew University Press, 1956), Column 19, 23; 장일선, 「아브라함의 방랑」, 한신대학교, 『신학연구』 21집, (1977, 가을), 71 참고.

12) G. Vermes, *Scripture and Tradition in Judaism* (Leiden: Brill, 1961), 114; 배정훈, 「희년서의 아브라함 전승」, 한국구약학회, 『구약논단』 30집 (2008.12), 75에서 중인.

내딛은 첫 행보에는 비신앙인의 질책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창 12:10) 과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던 이방 신앙인의 억울함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창 20:4,6) 이 함께 들려온다.

2. 삶의 터전과 소유를 둘러싼 갈등

두 번째 대립과 갈등은 땅과 재산을 둘러싼 친척 사이에서 야기된다. 지금까지 모든 여정 중에 아브라함과 롯은 늘 같이 다녔다. 처음 가나안에 도착해서 먹거리를 찾는 나그네로 떠돌아다니다 애굽까지 내려갔을 때만 해도 이들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들의 공동생활에 문제가 생겼다. 그것은 각자의 소유가 너무 많아 같이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아브람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창13:1~2, 5~6). 애굽을 떠나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올 때의 모습은 예전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갈 때와는 극히 대조된다.

사회적 병폐의 뿌리가 대부분 물질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아브라함과 롯 집단의 분쟁현장에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사람들도 함께 있었고(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창 12:7), 이삭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 속에서 살면서 많은 재산을 소유한다(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았으므로……. 창26:12~14).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리신 복이 이삭에게서도 갈등의 요인으로 등장한다. 이삭이 소유한 많은 재산은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불러일으켰다. 아브라함과 롯의 하인들이 소유물(possessions)로 인해 동거가 불가능했듯이, 이삭의 재산(양·소·중)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동거를 용인하지 않았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뺏던 우물을 훔으로 매워버렸다. 이삭은 아브라함 때에 뺏던 우물을 다시 뺏으나 그랄의 목자들은 그 우물의 소유권을 주장한다(창 26:20). 이삭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밀려난다. 그랄 목지들과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 장소를 옮겨 다니는 이삭에게서 땅과 재산의 문제로 인해 목자들 간의 싸움을 원치 않고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던 아브라함이 반복된다.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이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우물을 뺏다는 기록이 무려 다섯 번이나 등장한다(18~25절).

3. 웃음과 울음 사이에서

아브라함 내러티브에 나타나는 대립과 갈등은 점차 복잡해지고 강도가 깊어진다. 아브라함 내러티브는 처음부터 아내 사라를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다(“사라는 잉태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창11:30). 이는 이후에 이어질 자식으로 인한 갈등과 축복을 동시에 예고하고 있다.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 즉 그의 나이 85, 86세 때의 이야기이다. 사라가 여전히 수태를 못 하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고향인 메소포타미아의 관습을 따른다. 메소포타미아의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부인의 여종들은 남편이 후처로 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여종의 지위는 변하지 않았고 여주인은 여종을 임의로 대우할 수 있었다.¹³⁾

어떤 사람이 신전여인(*naditu*, 나디투)와 결혼하고 그 신전여인이 여종을 그 남편에게 주어 그녀(여종)가 자녀를 낳으면 그녀의 여주인과 동등한 권리를 바랄 수 있다. 그녀가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여주인은 그녀를 팔 수는 없으

13) 이종근, 『메소포타미아 법 사상』(서울: 삼육대학교출판부, 2008), 132.

며 그녀의 머리에 노예 머리채를 둘 것이며 그녀는 여종으로 여겨질지니라(함 무라비법전 146조).¹⁴⁾

창세기 기자는 이 여종을 애굽 사람(창 16:1,3) 혹은 애굽 여인(창 21:9)으로 그 신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기 위해 하갈을 후처로 맞아들였으나 임신한 하갈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사라를 멸시한다. 사라와 하갈 사이의 갈등은 아브라함의 하갈의 추방 허락으로 이어진다(창 16:6).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의 본부인이자 자신의 주인인 사라에 대한 하갈의 멸시는 21장에서 이스마엘의 이삭 멸시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추방당한 하갈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다시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 이스마엘을 낳는다. 하지만 사라의 질투에서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된다. 예전에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던 것처럼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목격한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동시에 쫓아낼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도 하갈은 애굽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다.¹⁵⁾

사라와의 갈등으로 인해 하갈이 도망하는 사건이 있었고, 급기야 하갈에게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은 이삭의 출생 이후 광야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후 이집트로 건너가 살게 된다(창 21:21). 창세기 16장과 21장의 설화를 비교해 보면 이 두 설화가 원래는 같은 기본설화를 가지고 있었던 두 개의 평행문임을 짐작할 수 있다. 우선 두 이야기에서 주인공들이 모두 두 같으며, 하갈이 광야로 도주(추방)하는 것이 클라이막스를 이루는데,

14) 이 법전의 전문은 Matha T. Roth, *Law Collections from Mesopotamia and Asia Minor*, SBL Writings from the Ancient World Series (Atlanta: Scholars Press, 1997), 76-142; ANET, 163-80; W.W. Davies, *The Codes of Hammurabi and Moses* (Berkeley, CA: The Apocryphile Press, 2006), 23-111; 김영진, 『율법과 법전』(서울: 한울출판사, 2005), 47-54; 이종근, 앞의 책, 99-165 등에서 볼 수 있다.

15) 폰라트는 갈등의 원인을 '사라의 관점에서 본 신분의 불평등'에서 찾으려 했다. 한동구, 『창세기의 신앙과 신학』(서울: 프리칭 아카데미, 2010), 363.

광야로 도망간(내쫓긴) 하갈의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의 사자) 개입은 두 이야기를 모두 종결시킨다.¹⁶⁾ 창세기 16장의 사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고 양자(창 15:2 참고)나 첩을 통해 혈통을 계승하고자 했던 ‘작은 믿음’의 소유자를 바라보았다면, 창세기 21장에서는 사라의 갈등과 질투 속에서 ‘진정한 상속자는 정부인에 의한 혈통의 계승자여야 한다’는 ‘좁은 민족주의’를 바라본다.¹⁷⁾ 두 여인의 대립과 갈등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 기뻐하는 한 여인의 웃음과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소리 내어 우는 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사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창 21:5~6)

하갈: (하갈이)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창 21:16)

사라의 환희에 찬 웃음(=이삭)에 묻혀 사라져가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울음소리, 그것은 예전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에서 나그네였듯이, 가나안 땅에서 혹독한 나그네살이로 울부짖는 한 다문화가정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울음소리였다. 하갈이 애굽 사람(혹은 애굽 여인)으로 소개되었듯이, 그가 낳은 이스마엘은 아랍인의 조상으로 자리 잡는다. 실현가능성이 희박해 보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의 부재는 다문화적 갈등을 불러 일으켰고, 개인 간의 갈등은 민족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것을 예시하고 있다. 본래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내어준 목적이 아이를 출산

16) 이경숙, 「이스라엘의 조상 사라와 베두인의 조상 하갈 이야기」,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 사상』 410호 (1993.2), 162.

17) 한동구, 앞의 책, 369.

하기 위함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갈의 출산으로 기대되는 건강한 가족은 사라의 목표였다. 결혼제도로부터 가족의 머리인 남편과 아버지, 동등하고 돕는 자로서 문화명령(창 2:20,24,25)을 성취케 하는 아내,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자녀들(출 20:12; 신 5:16)을 가진 집 또는 가족이 생긴다. 구약성서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의 삼각적 상호 책임은 성공적이고 성서적인 가족의 특징이다.¹⁸⁾ 그러나 사라는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하갈과의 피할 수 없는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그 목표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자구책으로는 그 목표에 이를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더 많은 갈등을 야기시켰을 뿐이다.

사라에게서 야기된 개인과 민족 간의 대립과 갈등은 비단 사라 자신에게서 그치지 않는다. 며느리로 맞이한 리브가¹⁹⁾ 역시 시어머니 사라처럼 한동안 임신하지 못했다(“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창25:21). 리브가의 불임기간 역시 20년이나 지속되고, 이삭의 나이 육십이 되었을 때에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아들을 낳는다. 비록 25년 이상을 기다렸던 아브라함보다 약간 짧은 기간에 이삭은 한꺼번에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명의 아들을 보았으나,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의 갈등은 야곱과 에서 사이의 갈등과 대결로 이어진다.²⁰⁾

18) W.C. Kaiser, 앞의 책, 176.

19) 이삭을 위해 며느리를 구하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당부하는 말(“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창 24:3-4)과 후에 야곱을 위해 며느리를 구하는 이삭이 야곱을 직접 불러 며느리감의 조건을 말하는 것(“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창28:1-2) 또한 같은 내용으로 반복된다.

20) 이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던(창 25:22) 두 아들의 출생은 출생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다. 이스마엘처럼 에서는 형이었고, 이삭처럼 야곱은 동생이었다. 그러나 야곱이 팔족 한 그릇으로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권을 구입하고 아버지의 축복까지 받은 후 하란으로 달아난다. 하란에서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은 조부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떠날 때와 이삭이

III. 화해와 상생의 윤리

1. 제9계명과 윤리의식

주지했듯이, 아브라함의 첫 이야기는 거짓말로 야기된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다. 거짓말이란 말하는 자가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와 상대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숨기는 행위를 말한다. 능동적으로는 상대를 속이는 것이고, 수동적으로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사실을 감추려는 동기가 거짓말의 정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²¹⁾

윤리십계라 일컬어지는 십계명(출 20:2~17; 신 5:6~21) 중 제9계명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이다. 좁은 의미에서 제9계명은 재판의 상황에서 거짓 증언을 금지한 것이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이 계명은 모든 형태의 부정직한 말을 금지한다. 즉 거짓말, 허위 사실을 조작, 날조하는 말, 악의로 다른 사람을 중상하고 모략하는 말들은 모두 이 계명과 관련된 것이다. 하나님은 거짓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²²⁾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것은 9계명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동시에, 진실을 말해야 할 순간에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을 지키는 것 또한 역시 정의의 실현을 막는 행위이요, 제9계명에 저촉되는 것이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작위적(作爲的)인 죄라면, 진실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부작위적(不作爲的) 죄이다. 구약은 이 점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레위기 5:1 참조).²³⁾

그말을 떠날 때처럼 소유가 넉넉한 거부의 모습이다. 그러나 형 에서와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그 갈등의 해소는 압록 나루터에서 하나님(혹은 하나님의 천사)과의 씨름 사건 이후 이루어진다.

21) G.R. Miller & Seiff, J.B., *Deceptive Communication* (Newbury Park, CA: Sage, 1993), 20; 김홍진, 「거짓말에 대한 기독교사회윤리적 소고」,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제18집, (2009.12), 154.

22) 박준서, 『십계명 다시 보기』(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155.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아내/누이사건에 대한 관점은 달라질 수 있다. 결혼 이전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누이였고(창 20:12), 족장시대에 이복누이와의 결혼은 흔한 일이었으며, 모세의 율법에 이르러서야 금지조항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레 18:9). 스페이저(A. Speiser)는 그 문화에서는 아내를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는 결혼계약과 함께 “의누이 계약”을 맺는 것도 가능했다고 주장한다.²⁴⁾ 그러나 사라가 예전 자신의 이복누이였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아내임을 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 거짓말임에 틀림없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참된 ‘증인’들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진실을 알고 있고 또 진실을 말해야 할 경우에 침묵을 지키는 것은 분명히 거짓 증거가 되는 것이요, 침묵의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제9계명은 이렇게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의 양면성이 있다. 즉 능동적인 거짓과 허위의 말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동적인 침묵의 거짓말도 금지하고 있다.²⁵⁾

창세기 26장에서는 아브라함/사라의 아내/누이 거짓 이야기가 아들 이삭에게서 반복된다. 무대 역시 그랄이다(창 26:1). 그랄이 어떤 땅인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부끄러운 현장에서 이삭은 아버지의 실수를 답습한다. 아내/누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세 본문 중 이삭 이야기는 가장 자세한 상황을 묘사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 이야기와는 달리 이삭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개입이 등장하지 않는다

23) 앞의 책, 156.

24) Ephraim A. Speiser, “The Wife-Sister Motif in the Patriarchal Narratives,” *Biblical and Other Studies*, ed. A. Altmann (Garden City, N.Y.: Doubleday, 1963), 15-28; idem, *Genesis, The Anchor Bible Commentary* (Garden City, N.Y.: Doubleday, 1964), 91-94 참조. 그러나 결혼계약과 의누이계약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왕들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 Walter C. Kaiser, 앞의 책, 308.

25) 박준서, 앞의 책, 158.

는 점이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목격한다. 이삭의 거짓을 알게 된 아비멜렉은 심하게 꾸짖은 후 하마터면 일어날 뻔한 죄를 스스로 예방한다. 사건의 해결은 전적으로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들의 윤리적 의식에 기인한다.²⁶⁾ 아브라함 내러티브에서 하나님의 개입과 말씀은 늘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요소이다. 그런데 이 내러티브에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의 윤리의식을 통해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리의식은 신학적인 의미를 강하게 지닌다고 할 것이다.

2. 화해와 상생

전술했듯이, 우리 사회의 병폐의 뿌리가 대부분 물질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가장 신성해야 할 목회자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연이어 나타나는 교회의 목회자의 재산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 또한 물질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굳이 자세한 단체나 교단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최근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여러 교단과 연합회, 교회들 안팎에서 증폭되고 있는 대립과 갈등은 침체되고 있는 기독교의 선교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아브라함과 롯의 식솔들이 일으킨 대립과 갈등의 현장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함께 있었다. 좁은 땅에서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이는 사람들이 때로는 물질로 인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곤 한다. 참다운 신앙회복의 증거는 바로 이런 부대끼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다름”으로 나타난다.²⁷⁾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그 다름은 조카인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양보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자신

26) P. Gooder, 앞의 책, 57.

27) 이사야, 앞의 글, 124.

을 믿고 따라온 롯에게 베풀 수 있는 책임 있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땅을 나누고, 땅에 대한 롯의 권리를 인정함에 있어서 보여준 아브라함의 관대함 때문에 여호와와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대한 땅의 약속을 새롭게 한다. 그것은 선택권을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이미 롯이 선택한 동쪽 요단 들녘을 포함하여, 그가 양보한 것 이상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창 13:14~15).

아브라함은 받을 땅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 땅을 종횡으로 걷는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나타난 이념적 암시는 땅을 나누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에 의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결국 그 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다.²⁸⁾ 구약성서, 특히 오경은 땅에 대해 엄청난 긴장감을 유발한다. 창세기에서는 힘들여 매장지를 산 것(창 23장) 외에는 안정된 발판이라고는 전혀 없이 땅에서 방랑하는 나그네 족장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으며, 전 가족이 애굽에 정주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²⁹⁾ 삶의 터전이 땅의 문제를 화해의 윤리로 극복한 바로 이때가 애굽에서의 철저한 실패를 경험한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점이었다. 즉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선 이후 제단을 쌓았던 사건 이후에 다시 제단을 쌓은 시점이다. 예배에 앞서는 화해는 예수의 말씀 가운데에도 강조된다. 예수도 산상수훈을 통해 형제(=이웃)와의 화해가 예배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말씀하신 바 있다.

28) Norman C. Habel, “Land as Host Country: An Immigrant Ideology,” 정진원역, 『평화의 백성: 아브라함 설화에 나타나는 이주이념』, 한국신학연구소, 『신학사상』 113집 (2001. 여름), 162.

29) C.J.H. Wright, 앞의 책, 55-56.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마 5:23~24).

형제와의 화해는 예배보다 우선한다! 이러한 화해 우선의 윤리는 다툼을 피하기 위해 땅을 양보하는 아브라함을 넘어 이삭에게서도 그대로 재연된다. 이삭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 속에서 살았다. 여러 모로 보나 아브라함 내리티브에 나타나는 이삭은 또 다른 아브라함이다. 다툼을 피하기 위해 블레셋 사람에게 계속해서 우물을 양보한 이삭에게 돌아온 결과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 불가침 조약을 맺은 일이었다. 여기서 이삭은 블레셋 왕과 동등한 지위 내지는 보다 더 나은 입장에서 서 있는 계약체결의 주체로 나타난다. 이 사실은 창21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의 계약을 떠올리게 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한 동쪽 요단 들녘을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 다시 주었던 것처럼, 이삭이 이미 양보해버린 우물을 다시 찾게 되었고 그 이름을 브엘세바로 부른다는 점이다. 브엘세바가 어디던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늑탈당했던 우물로 인해 아비멜렉을 책망했던 바로 그 우물이 있는 장소가 아니던가?(창 21:25~32) 이삭은 자신이 양보한 모든 것을 아브라함처럼 계약 체결을 통해 다시 회복했던 것이다. 그랄 땅에서의 우물 양보로 위기를 넘긴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친 일이다(“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창2 6:23,25).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옮겨 다니며 장막을 칠 때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말이다(창 12:8; 13:3~4 참고).

3. 다문화적 인식

아브라함/사라와 하갈,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비단 고대근동의 일부다처제 사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본부안-대리모의 대립과 갈등을 넘어 독자에게 다문화적 인식을 요청한다. 창세기 본문은 하갈이 애굽 여인, 애굽 사람이었음을 강조한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방 땅 애굽에서 보호받아야 할 나그네였듯이 애굽 여인 하갈도 이방 땅 가나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나그네였던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갈을 나그네살이로 내몰았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네가 어디서(אֵי-מֵן) 에-민, from where) 왔으며 또 어디로(אֵנָה) 아나, to where) 가느냐?”고 물으신 것은 하갈의 정체성이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살이임을 드러낸다.³⁰⁾ 하갈은 사라의 필요에 의한 일시적 공급책이었다. 기독교적 전통에서 흔히 사라와 이삭은 믿음의 계대를 잇는 적통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브라함의 불신의 결과물로 치부하기 쉽다. 그러나 성서는 하나님이 단지 이삭에게만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음을 전한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의 집안 너머에까지 적용된다.³¹⁾ 본문이 사라의 하갈 다름에 나타나는 다분한 억압적이고 폭력적 성격을 살필 필요가 있다. 광야로 종을 내쫓는 것은, 만약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일종의 살인 행위였을 것이다.³²⁾

이러한 사라와 하갈 사이의 대립과 갈등은 일종의 힘과 억압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다. 힘 있는 아내 사라는 힘없는 노예 하갈을 필요로 했으나

30) 한동구, 앞의 책, 260-261.

31) W. Brueggemann & B.C. Birch, T.E. Fretheim, D.L. Petersen. *Theological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2nd ed. (Nashville: Abingdon Press, 2005), 75-76. 브루그만에 따르면 이스마엘과 이삭의 평화로운 관계는 그 둘이 함께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르는 모습에서 상징화된다(창 25:9).

32) P. Gooder, 앞의 책, 60.

자신에게 없는 유일한 부분 즉 하갈이 아들을 생산하자 힘의 패권이 변하는 것에 위협을 느낀다. 창세기 16:1~16과 21:8~21에 나타나는 이 두 여인의 대립과 갈등은 비록 사라가 하갈을 추방하는 비슷한 주제를 지니고는 있으나 두 이야기가 겹치기 보다는 하나가 다른 하나를 잇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첫 번째 내러티브에서 하갈은 임신 중에 사라의 가혹한 행동을 피해 도망하지만 천사에 의해 돌아가라고 설득 당한다. 두 번째 내러티브에서 하갈은 사라에 의해 내쫓김을 당하고 애굽에서 자신의 아들과 새로운 삶을 찾는다. 두 이야기는 모두 하갈의 상황이 악화될 때에 점차 하나님이 하갈을 보호하심을 말한다.³³⁾ 이렇게 창세기 16장과 21장에 나타나는 사라와 하갈 사이의 긴장과 대조는 상생(相生)시키시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해결된다. 하나님은 약속의 후손으로서 이삭을 선택하셨으나 아브라함이 포기한 아들이자 다른 민족의 조상이 되는 이스마엘 또한 아버지처럼 돌보아주신다(창 21:17~18). 하나님은 비천한 자의 운명을 방치하지 않고 구원하신다.

죽음의 목전에서 하갈을 찾아온 하나님은 일찍이 절망 중에 빠진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다.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후손의 약속을 확인해주신 하나님과의 만남은 구약성서가 말하는 전형적인 나그네 대접을 보여준다(창 18장). 아브라함은 하나님 일행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고 물을 가져와 그들의 발을 씻기고 나무 아래 쉬게 하며 떡과 송아지, 영긴 젖과 우유를 가져다가 그들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대접한다.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은 나그네였다. 나그네이신 하나님은 나그네 된 자들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동행하며 지켜주신다. 나그네이신 하나님은 나그네 된 자가 다시금 다른 이를 나그네로 내모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신 것이다.³⁴⁾

33) 앞의 책, 59-60.

튜발(S.J. Teubal)은 이 이야기를 역사적, 문화적 관점에서 이해하려 한다. 특히 하갈과 사라 사이의 긴장과 충돌을 메소포타미아 문화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라는 자신의 권리를 가진 여족장이었고, 사라와 리브가, 라헬은 모두 메소포타미아 여사제들이었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살펴본 함무라비 법전 146 단락은 여종이 여사제를 위한 아이를 가지는 관습은 메소포타미아 문화에서 잘 알려진 일임을 지적한다.³⁵⁾ 메소포타미아인이 아닌 애굽인이었던 하갈의 입장에서는 사라의 관습과 대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고, 둘 사이의 문화적 오해는 가정과 집단 구성원의 괴리와 죽음 직전까지의 갈등으로 몰아넣었던 것이다.³⁶⁾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에서 나그네였을 때 그들 또한 이방 땅에서 다문화적 구성원의 일부였듯이, 애굽 여인 하갈이 아브라함 공동체에서 다문화적 구성원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나그네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 돌아보셨던 것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구성원들의 나그네됨 정체성을 인식하고 서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아브라함 내러티브에 나타나는 멜기세덱 이야기에서 다문화적 상생의 모델을 찾아볼 수 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멜기세덱은 엘 엘리온(El Elyon)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되고(창 14:18), 멜기세덱은 엘 엘리온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한다. 아브라함은 살렘(=예루살렘, 여부스 족속)의 거민을 존중하고, 아브라함은 노획물들 중에서 십일조를 멜기세덱에게 내어준다(창 14:18~21).³⁷⁾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정당한 제사장으로서의 멜기세덱

34) 한동구, 앞의 책, 191.

35) S.J., Teubal, "Sarah and Hagar: matriarchs and visionaries," *A Feminist Companion to Genesis*, ed. A. Brenner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236.

36) P. Gooder, 앞의 책, 60 참고.

37) Norman C. Habel, 앞의 글, 163.

의 권위 및 여부스 족속의 영역을 다스릴 권리를 아브라함이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이 멜기세덱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그 땅 원주민과의 평화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다. 새로운 땅과 그곳의 문화는 나그네 아브라함을 친구로서 환영한다. 베스터만(Westermann)은 “멜기세덱은 지친 해방자에게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고 그를 자신의 영역 안에 평화(Shalom)로 받아들인다”고 말한다.³⁸⁾ 가나안의 종교문화를 일소하려는 신명기의 군사적인 이념이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에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은 축복을 증보하고, 그 땅의 소유자와 평화적인 상생의 관계를 유지한다. 여기서 가족의 족장인 아브라함은 대등한 사람들 사이의 선의의 사도로서 일한다.³⁹⁾ 결국 다문화적 상생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때로는 나그네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의 나그네적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IV. 나오는 말: 나그네 이스라엘, 나그네 하나님

아브라함 내러티브 전체에 나타나는 갈등에는 나그네살이라는 배경이 깔려있다.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과 자기네 선조들의 정체성을 나그네살이에서 찾았다. 이스라엘의 역사적 경험들을 집약적으로 모아놓은 ‘짧은 역사 신조’(short historical credo)는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삶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신26:5-9≃신6:20-25; 수24:2-13)라고 고백한다. 이 역사 신조가 말하는 아람 사람이란 구체적으로 밋단아람(아람 평원)에서

38) C. Westermann, *Genesis 12-36* (London: SPCK, 1985), 205; Norman C. Habel, 위의 글, 163에서 중인.

39) 위의 글, 163.

방랑자의 삶을 살았던 야곱을 일컫는다. 스스로를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 고백하는 나그네로서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비단 아브라함에게서 그치지 않는다. 어디 아브라함과 야곱뿐이던가. 형제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는 그들의 초기 역사가 온통 나그네적 삶이었음을 말해준다. 또한 희년법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레 25:23)로 규정하면서, 이스라엘이 과거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해 당한 고난과 학대를 거울삼아 자기 나라 안에 살고 있는 나그네들에게 괴로움을 주지 말아야 함을 강조한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 내러티브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나그네이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 보호사상은 단순한 인도주의적 차원을 넘어 신학적 윤리로 발전되었으며, 따라서 구약성서에서 사회 윤리적 문제는 곧 신학적인 문제가 된다.⁴⁰⁾

신학에서 가장 연구되지 않은 분야인 구약 윤리학은 가능성과 정당성 그리고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야이다. 카이저(W.J. Kaiser)의 지적처럼 구약 윤리는 신약 윤리나 다른 장르의 기독교 윤리를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능성과 정당성을 지니는 반면, 구약성서가 지니고 있는 민족적, 역사적, 율법적 개념들을 유효성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⁴¹⁾ 하지만 구약윤리는 하나의 공동체, 백성으로서 자신들이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과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물리적 환경 – 곧 그들의 땅 – 에 대한 이스라엘의 이해에 기초하여 세워져 있으며,⁴²⁾ 구약성서 자체가 규정하고 인정하는 생활방식과 관련된다. 따라서 구약의 윤리 내용은 독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요구, 행위, 품성으로 나타

40) 이사야, 앞의 글, 280, 283.

41) W.J. Kaiser, 앞의 책, 36-50 참조.

42) C.J.H. Wright, 앞의 책, 22.

난다. 이러한 윤리와 신학간의 밀접한 연관은 성경 윤리 체계의 뚜렷한 특성 중 하나가 되고 있다.⁴³⁾ 이런 의미에서 스스로를 나그네살이로 인정했던 고대 이스라엘의 생활양태가 집중되어 있는 족장사, 특히 아브라함 내러티브는 구약윤리의 특성을 잘 드러내준다고 할 수 있다. 이방 땅에서, 심지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조차 스스로를 나그네로 이해했던 그들의 정체성 이해는 예수에 의해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윤리적 삶의 방향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마 25:35~36, 45).

고대의 모든 교훈적 이야기가 그렇듯이, 대립과 긴장, 갈등의 이야기를 전한다. 아브라함 내러티브는 고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사회적 대립과 갈등의 이야기를 전 개하고, 창세기 저자/편집자가 살았던 포로/포로 이후 시대의 이야기를 아브라함 내러티브라는 매개체를 통해 전하고 있다. 아브라함 내러티브에 등장하는 대립과 갈등 그리고 화해와 상생의 윤리는 비단 아브라함 내러티브 안에 국한되지 않는다. 야곱과 요셉 내러티브를 넘어 구약성서 전체에서 발견되며 또한 읽혀야 할 과제와 덕목이자, 이와 같은 윤리적 읽기는 독자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김영진. 『율법과 법전』. 서울: 한들출판사, 2005.
- 김창대. 「구약윤리 방법론을 위한 사례연구: 사형제도」. 한국구약학회. 『제86차 춘계학술대회: 구약과 공정한 사회』, 2011.
- 김홍진. 「거짓말에 대한 기독교사회윤리적 소고」.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제18집, 2009.
- 박준서. 『십계명 다시 보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 배정훈. 「회년서의 아브라함 전승」. 한국구약학회. 『구약논단』 제30집, 2008.
- 왕대일. 「구약 속의 신약, 신약 속의 구약: 아케다와 골고다」. 한국신학연구소. 『신학사상』 제115집, 2001.
- 유연희. 「누가 위험에 빠진 미녀를 구하라?」. 한국여성신학회. 『한국여성신학』 제51집, 2002.
- 이경숙. 「이스라엘의 조상 사라와 베두인의 조상 하갈 이야기」.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사상』 제410호, 1993.
- 이사야. 「구약의 사회적 약자와 법전의 사회윤리」.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제18집, 2009.
- 이사야. 「이주와 제단쌓기를 통해 본 아브라함의 모습」.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 연합신학대학원. 『신학논단』 제60집, 2010.
- 이종근. 『메소포타미아 법 사상』. 서울: 삼육대학교출판부, 2008.
- 이태훈. 「구약의 외국인 복지」. 한국구약학회. 『구약논단』 제27집, 2008.
- 장일선. 「아브라함의 방랑」. 한신대학교. 『신학연구』 제21집, 1977.
- 한동구. 『창세기의 신앙과 신학』. 서울: 프리칭 아카데미, 2010.
- Kaiser, W.C., *Toward Old Testament Ethics*. 홍용표 역. 『구약성경윤리』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0.
- Norman C. Habel, *Land as Host Country: An Immigrant Ideology*. 정진원 역. 「평화의 백성: 아브라함 설화에 나타나는 이주이념」. 한국신학연구소. 『신학사상』 제113집, 2001. 역름.
- Wenham, G.J., *Exploring the Old Testament 1: The Pentateuch*. 박대영 역, 『모

세오경』(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7).

Wright, C.J.H.. *Living as the People of God: The relevance of Old Testament ethics*. 김재영 역. 『현대를 위한 구약윤리』.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89.

Avigad, N. and Y. Yadin, *A Genesis Apocryphon*. Jerusalem: Hebrew University Press, 1956.

Barton, J.. "Understanding Old Testament Ethics," *JSOT* 9, 1978.

Birch, B.C. & L.L. Rasmussen (eds.), *Bible and Ethics in Christian Life*. Minneapolis: Augsburg, 1976.

Brueggemann, W. & B.C. Birch, T.E. Fretheim, D.L. Petersen. *Theological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2nd ed. Nashville: Abingdon Press, 2005.

Clements, R.E.. "Christian Ethics and the Old Testament," *Modern Churchman* 26, 1984.

Davies, W.W.. *The Codes of Hammurabi and Moses*. Berkeley, CA: The Apocryphile Press, 2006.

Gooder, P.. *The Pentateuch: A Story of Beginnings*. New York: T&T Clark, 2000.

Janzen, W.. *Old Testament Ethics: A Paradigmatic Approach*. Louisville, Ken.: WJK, 1994.

Kaiser, W.C.. "New Approaches to Old Testament Ethics". *JETS* 35, 1992.

Kaiser, W.C.. *What does the Lord Require?: A Guide for Preaching Biblical Ethics*. Grand Rapids: Baker, 2009.

Miller, G.R. & Seiff, J.B.. *Deceptive Communication*. Newbury Park, CA: Sage, 1993.

Rogerson, J.W., & M.D. Carroll. *Theory and Practice in Old Testament Ethics: The Contribution of John Rogerson*, *JSOTSup.* 405. London: T&T Clark, 2004.

Roth, M.T.. *Law Collections from Mesopotamia and Asia Minor*, SBL Writings from the Ancient World Series. Atlanta: Scholars Press, 1997.

- Speiser, E.A., "The Wife-Sister Motif in the Patriarchal Narratives," *Biblical and Other Studies*, ed. A. Altmann. Garden City, N.Y.: Doubleday, 1963.
- Speiser, E.A., *Genesis*, The Anchor Bible Commentary. Garden City, N.Y.: Doubleday, 1964.
- Spina, F.A., "Israelites as gerim, 'Sojourners' in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 *The Word of the Lord Shall Go Forth*, eds. by Carol L. Meyers and M. O'Connor. Winnoa Lake: Eisenbrauns, 1983.
- Teubal, S.J., "Sarah and Hagar: matriarchs and visionaries," *A Feminist Companion to Genesis*. ed. A. Brenner.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 Vermes, G., *Scripture and Tradition in Judaim*. Leiden: Brill, 1961.
- Vriezen, T.C., *An Outline of Old Testament Theology*, 2nd ed. Newton, M.A.: Chas. T. Bgranford, 1970.
- Westermann, C., *Genesis 12-36*. London: SPCK, 1985.
- Wright, C.J.H., *The Use of The Bible in Social Ethics*. Bracote: Grove, 1983.
- Wright, C.J.H., *Walking in the Ways of the Lord: The Ethical Authority*.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5.

논문투고일: 2011. 10. 31

심사개시일: 2011. 11. 18

게재확정일: 2011. 12. 17

 • 국 문 초 록 •

구약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족장사(patriarchal history, 창12-50 장)는 고대 이스라엘의 신앙과 생활양태의 시작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구약학과 윤리학, 두 학문 간의 중요한 접목지라고 할 수 있다. 족장사는 동일한 가족의 특별한 구성원들, 즉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요셉이라는 세 명의 주요 인물과 계대의 계승, 구성원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그 갈등의 극복 등의 다양한 주제를 둘러싼 이야기들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들 족장들의 대립과 갈등 배후에는 나그네살이 경험이라는 공통점이 등장한다.

특히 족장사의 시작이자 중심이 되는 아브라함의 나그네살이는 단순히 옛 주요 조상들의 삶을 묘사하거나 그들이 지녔던 불굴의 야웨신앙을 제시할 뿐 아니라, 구성원과 계대 간의 연속성 속에 나타나는 대립과 갈등 그리고 그 극복의 이야기를 포로라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창문과 거울로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주 이야기로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나그네살이에 나타나는 대립과 갈등을 생존을 위한 거짓말, 삶의 터전과 소유를 둘러싼 갈등, 다문화적 가족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으로 제시한다. 아울러 이러한 갈등을 담고 있는 아브라함 내러티브를 십계명 중 제9계명과 내러티브가 담고 있는 윤리의식, 화해와 상생, 다문화적 인식 등의 윤리적 관점으로 새롭게 읽기를 시도한다. 여기에는 나그네 이스라엘과 나그네 하나님이라는 신학적 관점이 포함된다. 이는 고대 이스라엘 생활양태를 담은 이야기를 이 시대의 프리즘으로 읽고, 그 극복과 상생의 이야기를 윤리적 관점에서 해석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이다. 스스로를 나그네로 인식했던 고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아브라함 내러티브에 등장하는 하나님까지도 나그네로 인식했던 신학적 메시지를 기독교 사회윤리적 성찰로 제시한다.

주제어: 아브라함, 대립과 갈등, 화해와 상생, 윤리, 다문화, 나그네살이
